

대행 스님

이 마음의 도리는 이 우주를 굴릴 수 있는 그런 도리입니다

마음 도리 모르고 몸을 벗는다면…

질문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모르고 몸을 벗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 무서운 도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학으로만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도리를 모르고, 둘이 아님을 모르고, 둘 아닌 데서 참나라는 것이 있는 거를 모르고, 우주 전체와 내가 더불어 같이 있는 거를 모를 때, 너무나 애석한 것은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만약에 이 옷을 벗는다면 식(識)만 있지 분별이 없어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식만 있죠. 그래서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금방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었다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부닥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식만 남았으니 지금 그것을 증명해 보시려면 지금 아주 오관을 딱 가려 보세요, 눈도 막고 귀도 막고 다.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은 눈 아닌 눈이 있어야 하고 귀 아닌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죠. 그리고 책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뭐가 있지, 도대체 식만 남아 가지고서 아니, 보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 도리를 몰라요. 집이 어떤 집인지, 요만한 굴속인지 큰 집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 굴속도 크게 보이죠. 그리고 기와집으로도 보이고 아주 그 보석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하니 눈이 없다 이겁니다. 욕심에 꽉 찬 그 눈은 바로 식만 남아서, 생시에 살던 그 식으로서, 그 좋은 것만 가지려고 했던 그 식만 남아서 그저, 하다못해 돌 틈을 봐도 그 돌기둥으로 보고 돌집으로 보고,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가니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지금 살았다고 해서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는 없죠. 그저 값싼 말로, 붙을 데가 없는데 뭐 붙을 게 있어서, 내가 없는데 뭐 붙을 게 있느냐고 이렇게들 허영 말해 버리고 마는데 그 무서운 도리는 누가 처리할까요?

한번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 길을 가다 보니까 한 노파가 병이 들어서 가다가 엎드러져서 헤맸습니다. 나는 그런 꼴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구더기 눈에는 똥만 뵌다고, 여북하면 중얼중얼하고 갔겠습니다마는 말이에요. 그래 인제 가다 보니까 엎드려서 저거 하더니 고만 다 죽어 버리는 겁니다. 순간, 죽는 그 순간 뭘 생각했느냐 하면 그때의 그 식이 아무 분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금 거기다가 혼합을 시켜서 거기 다시 붙여 놓은 겁니다, 그걸 잡아서. 그래야 무슨 자손들이 있으면 자손들, 그래도 그 집에 가서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응, 집으로 찾아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본 것만이라도 인연이야. 그 즉시 본 게 인연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닿은 게 아닌가. 그 또한 누군가. 옛날에 내가 모를 때 내 모습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는 뚜벅뚜벅 갔습니다. 조금 있더니, 한 오 분 죽더니 깨어나더군요. 그래서 가는 걸 봤습니다.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이 밥을 했으면 밥을 해 먹고서 그릇을 닦아서 다 마무릴 지어 놔야 밥을 해 먹고 치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도리가 아주 작고 협소하지마는 이 우주를 굴릴 수가 있는 그런 도립니다. 요 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방편이든 큰 방편이든 그것은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하도 버릴 게 없고 진실이기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보아 왔고 그랬는데, 옛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재를 이렇게 놓거나 쌀을 놓거나 그래서 뭐가 됐나 하고 볼 때에 새 발자국도 있고 뱀이 기어 간 것도 있고 또 사람 발자국도 있고 별의 별 발자국이 다 난다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식만 남아서 자기가 분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눈 가리고 귀 막고 코를 막아서 만약에 그렇게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밝은 불빛을 못 봐요. 내 마음의 불빛을. 불빛이 없으니 어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저 토끼굴로 안 들어가나 개집으로 안 들어가나, 뱀굴로 안 들어가나 까치굴로 안 들어가나. 또 그 집안의 소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소가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분간을 못하니 어쩌다가 인연이 돼서 사람 만나면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 그런 분간을 못해서 또 좌천이 되고, 좌천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차원대로 그렇게 또 울고 아프고 부닥치고 서로 모였다가 또 헤어져서 또 그렇게 되시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의 도리를 모르면 그렇게 우리가 눈 가리고 코 막고 귀 막고 다 이렇게 아주, 송장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분별하겠습니까? 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이 자리에서 죽었다 하면은 썩지도 않은 그 송장이 왜 보지 못합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선천적인 식만 남아서 이리저리 이렇게 자기가 분간을 못하고, 캄캄하니까, 암흑인데 어떻게 발을 한 발 떼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의 그 뜻은, 만사만생이 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원리가, 누구나 잘되고 싶지 못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되고 싶어서 못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눈이 없고 귀가 없으니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각에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이 도리를, 이 만법의 이치를 참답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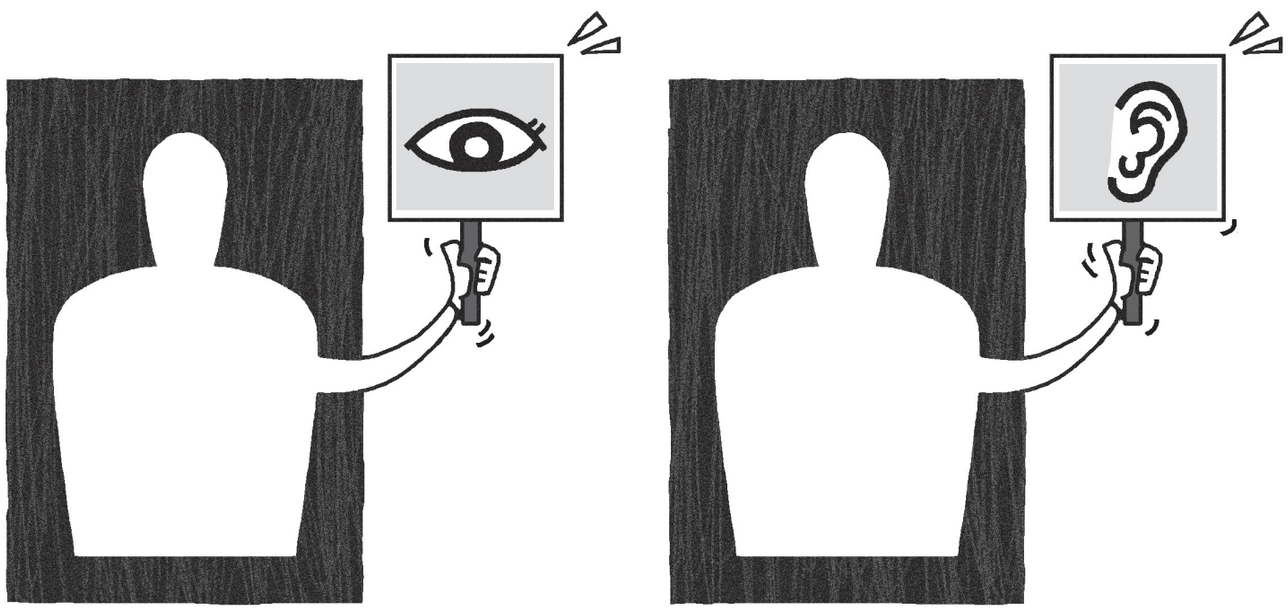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믿음을 확고히 하고 싶어요

질문 평소에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몸이 좀 아프고 보니 자신감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싶은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전에 한번 이런 예가 있었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엉금엉금 기다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에서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나와요. 나와서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일어났어요. 그것이 꿈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게 꿈같이 그렇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실제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한번은 이런 예가 있었어요. 누가 꼭 수만 명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 지극하든 지극하지 않든 간에 한번 내가 알았다고 대답을 했으니 그거를 어떡하겠습니까. 벌써 내가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짓을 그냥 말로 하는 거보다도 진짜 이게 거짓을 한다면 그 거짓의 대가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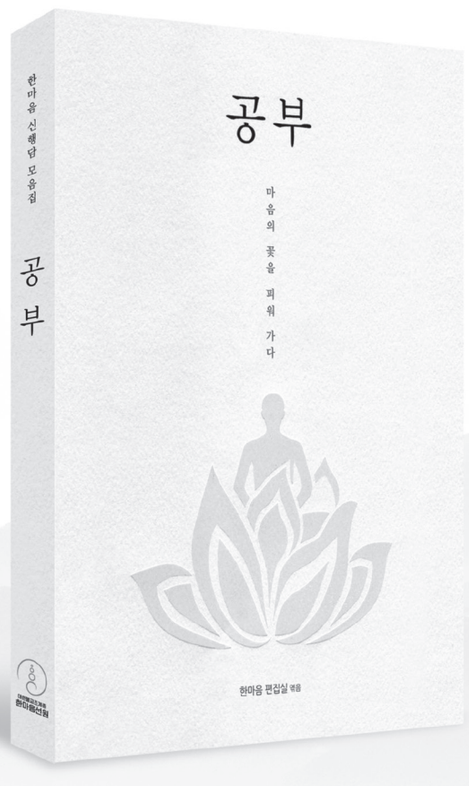
어느 날은 차를 타고 오는데 말이에요, 묘지가 그냥 아파트같이 쫙 올라가고 쫙 올라가고, 많은 묘지가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 묘지에 있는 분들을 다 동원했어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하죠. 그러나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위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깐. 주인공으로 하여금 전부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립이 됐고, 그러고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나 할 일만 하면 됐지 그 사람한테 고맙다 뭐, 어쨌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남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고, 또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면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 공부에는 어긋나는 짓이죠. 평소 때에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대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게 한마음의 도리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이 깊은 뜻을 얼마나 해야 알아들을는지 모르지만 우습게 생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